

끝 모르고 떨어지는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정부, 대책없어 고심만...

지난 1일 6만원대로 추락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정부가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REC 당 10만원 선에 머물렀던 REC 가격은 지난 1일 6만원대로 추락했다.

정부는 폭락하는 현물시장 REC 가격을 두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증가한 RPS 의무량이 새롭게 주어지는 내년 3월 전까지 2018년도 의무량(5%)은 정체를 이룬데다 현물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자들은 REC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까지 의무 발전사업자들은 직접 발전량을 채우거나 계약된 발전량만으로도 대부분의 의무량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개 의무사가 이미 할당된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량을 현물시장에서 구매 없이 자체 설비·계약으로 대부분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물 시장에서 REC 공급 대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 당긴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고정가격계약제 입찰 시장은 여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실 관계자는 "올

해 들어 현물시장에서 REC 가격이 계속 해서 떨어지다 보니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REC와 SMP를 더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팔겠다는 사업자들이 늘었다"며 "평상시보다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자꾸만 떨어지는 REC 현물시장 가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의무를 요구한 한 발전사업자는 "언젠가 REC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 믿음으로 판매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발급된 REC에도 3년이란 유통기한이 있어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당장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REC 판매를 해야 하는데 날이 갈수록 가격이 바닥을 찍어 걱정이 많다"며 "생계형 소규모 사업자들은 REC 현물가 폭락으로 인해 큰 위협에 처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현물시장 REC 가격 하락에 대책을 고심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1개 공급의무사들은 자체 계약과 설비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채워가고 있다"며 "공급의무자들의 의무 이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현물시장 가격을 조정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kimyj@

인터뷰

크리스토퍼 게랑 넥상스 그룹 CEO



40대 CEO가 매출 8조2000억원(64억 유로)에 달하는 세계적 전선기업을 이끌게 됐다. 넥상스는 지난 7월, 그룹의 새 리더로 46세의 크리스토퍼 게랑 씨를 선임했다. 그룹 역사상 최연소 CEO다. 그는 1997년 넥상스 그룹에 입사한 이후 총 12번의 승진을 거듭한 끝에 20년 만에 그룹 최고경영자에 등극했다. 크리스토퍼 CEO는 영업 사원으로 시작해 2014년부터 유럽지역 총괄사장을 역임하는 등 케이블 분야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EO 취임 이후 1박 2일 일정으로 첫 방문한 그를 지난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

크리스토퍼 CEO는 이 시대 기업의 화두인 '혁신'과 '미래 전략'에 대해 자신의 평소 철학을 가감 없이 표현했다.

그는 "넥상스는 고객과 함께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며, 효율적인 미래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며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고객중심적이어

넥상스 입사 이후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그룹의 리더가 되는 과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는 소통을 즐기고 특히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소속감과 일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함께 일하는 것

체의 10%로 늘리기로 했다. 스스로 위라벨을 실천하는 크리스토퍼 CEO는 1년에 두 번씩 3일 동안 모든 것이 차단된 곳에서 명상을 즐긴다고 한다. 평소 동양철학에 관심이 많아 명상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다. 기업문화만큼이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래 먹거리 시장이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 'VUCA'라고 합니다. 변동이 심하고(Volatile), 불확실하며(Uncertain), 복잡하고(Complex), 모호한(Ambiguous) 시대라는 뜻이죠. 넥상스가 전문기관에 의뢰한 메가트랜드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는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특히 도심 인구는 4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도시 인구의 증가는 전기와 통신 데이터, 이동 수단 등이 증가할 다양한 분야에서 전선 수요가 확대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는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설명하며 미래 전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최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의 기조연설에서 인공지능이 사람과 통하는 장면을 봤어요. 상대방은 인공지능인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군요. 기술의 발전이 정말 빠르다고 느낀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질 거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크리스토퍼 CEO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데이터 전선의 수요는 지금보다 100배 이상 늘 것"이라며 "이는 전선업계의 새로운 기회"라고 했다.

넥상스코리아의 그룹 내 비중과 역할에 대해서도 소신 이 뚜렷하다.

크리스토퍼 CEO는 "한국은 그룹 내에서 8번째로 규모가 큰 나라이면서 아시아 대표 기업(flagship)입니다. 특히 그룹에 단 세 곳 뿐인 연구소 중 하나인 진천 NRC(Nexans Research Center)도 있죠. 진천 NRC는 컴파운드와 혁신 제품,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그룹 내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방한 일정이었지만 넥상스코리아 임직원들과 미래 케이블 시장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뿌듯하다"면서 "넥상스는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제품과 혁신 서비스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케이블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길"이라고 말했다. 이준범 기자 jnb@

“인공지능시대 도래, 전선업계 기회”

‘소통,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등 미래시장 유연하게 대처

디어를 바탕으로 환경 파괴 없는 지속 성장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워크넷(Work-Network),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등 미래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영방식과 기업문화도 적극 도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CEO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거대 글로벌 전선그룹을 이끌고 있는 비결을 '소통'에서 찾았다.

"모든 사람에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을 즐기죠. 기능이 아닌 임무를 선호하고 디지털을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선 이들과 꾸준히 소통해야 하고 여기에 맞게 기업문화도 바뀌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크리스토퍼 CEO는 취임 이후 무엇보다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 시행보다 앞당겨 내년 중순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로 다른 시각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든다는 생각에 여성 임원의 비중을 전

◆넥상스 그룹은...

넥상스 그룹은 지난 1897년 프랑스에 설립된 전선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 전세계 34개국에 생산 설비를, 80여개국에 영업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20년의 역사 속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 전선 시장에서 가장 폭넓고 전문화된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전력, 통신, 가전, 빌딩 등이며 해당 분야에서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선을 제작·공급하고 있다. 넥상스 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64억 유로를 기록했다. 지역별 매출로는 유럽이 31%, 북미가 12%, 아시아가 12%, 남미 6%, 중동·러시아·아프리카가 6%를 차지했다.

◆넥상스 인 코리아는...

넥상스코리아의 전신은 지난 1960년 설립된 대성전선이다. 대성전선은 이후 2001년 넥상스 그룹에 편입, 넥상스코리아로 사명을 바꿨다. 넥상스코리아는 대영전선과 극동전선의 지분 확보를 통해 규모를 확장했다. 3개 기업을 합해 넥상스 인 코리아로 부르기도 한다. 넥상스 인 코리아는 전력케이블, 동통신케이블, 광케이블, 자동차용 케이블, LAN케이블 등 범용케이블을 생산하고 있다. 진천, 음성, 청원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서울, 부산, 광주에 영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총 임직원은 443명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4580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LH와 에너지효율향상 MOU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중갑)은 지난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복지확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대표 공기업과 공동주택 대표공기업이 힘을 합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ERS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 2019년도 제14기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가 2019년도 제14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구분	일 반	조 합 원
전형별	신청일 현재 전기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	신청일 현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과 임직원 및 그 자녀(전공 무관, 단 전기관련학과 우선 선발)
공 통	1. 신청일 기준 이전 최근 이수학기의 평균성적 B+ 또는 백분율 환산점수 85점 이상인 자 2. 신청일 기준 이전 최근 이수학기의 이수학점이 최소 15학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2019년도 1, 2학기에 타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수혜가 예정되어 있는 자(단, 교내 및 국가장학금 제외)
- 2019년도 휴학·군휴학 예정자 및 초과학기 이수예정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휴학 시 장학생 선발 취소 또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 정계처분을 받은 자, 장학회 설립취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입학예정자

● 선발 인원 및 기준

- 인원 : 대학생 00명 예정(단, 전형별 1학교 1인 선발을 원칙으로 함)
- 기준 : 서류심사(성적 50%, 가정형편 50% 반영)

● 장학금 혜택

- 금액 : 연 500만원(학기당 최대 250만원)
※ 단, 등록금에서 교내 및 국가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학기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기간 : 2019년도 1, 2학기(정규학기)

●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암호화하여 발급받고,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와 자기소개서는 장학회 홈페이지(www.ecfcsf.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학교 발행)
-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부)의 경우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조합원사 재직증명서(조합원 전형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조합원사 근무 사실 확인용)
- 재정상황 증명서류 각 1부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일 반	○ 2018년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부, 모 각 1부) ○ 2017년 소득금액증명원(부, 모 각 1부)	○ 소득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 제출 ○ 지원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모가 아닌 배우자의 관련서류 제출 ○ 편모(부)의 경우 모(부)의 서류만 제출 ○ 지원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자의 관련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
저소득층(해당자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자 증명서	

● 선발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2일(월) 9시 ~ 11월 23일(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원서접수(www.ecfcsf.or.kr), 이메일·우편·방문 접수 불가
- 합격자 발표 : 2018년 12월 중 예정(일정 변경 시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원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준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제안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6936-9323 / Fax 02-6936-9329)

2018년 11월 5일



재단법인 전기공사공제조합장학회